

# 남원시 맞춤형 생계 급여 '든든'

### 올해 4인 가구 기준 6.4% 인상... 183만3000원→195만1000원 자동차 일반재산 적용도 차령 10년 이상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

남원시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발맞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든든한 맞춤형 급여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을 지난해 대비 4인 가구 기준 6.42%, 1인 가구는 7.34% 인상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생활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한 내용이 반영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지원 기준액이 지난해 183만 3000원에서 올해 195만1000원으로 월 최대 11만 7000원이 늘었다.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도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200만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500만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로 완화됐고 노인근로소득 공제는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시는 변경된 선정 기준을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현수막, 이·통장회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가정방문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저소득층 대상자 발굴·지원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5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협업 및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읍시 관계자들이 이학수(가운데) 시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정읍시, 지적민원처리 사례 최우수상

### 지목변경 미신청 토지 488건 발굴... 2억여원 취득세 확보

정읍시가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5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에게 찾아가는 지목현실화 서비스'로 협업 및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총 32편의 사례가 접수돼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적극행정, 협업, 고충처리, 특수시책 등 분야별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결정했다.

대회에서는 최종 6편이 결선에 올랐고 이 중 정읍시의 우수사례가 협업과 적극행정에서 탁월했다는 평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인허가 후 지목변경이 미신청된 토지 488건을 발굴, 개별 안내를 통해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총 1억7500만 원의 취득세를 확보해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민에게 찾아가는 지목현실화 서비스를 통해 행정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1000가구 증가

### 농가부담금 90% 지원 사업 호평 보장 품목 고추·복분자·단호박 등 70개 품목 가입기간도 각기 운영



지난해 폭염 때문에 고창의 단호박 작목이 농작물재해로 인정됐다. 지역 단호박농가의 피해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은 심덕섭 군수의 핵심 농정공약인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으며 가입농가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군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가 지난 2022년 8134농가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9278농가로 1000여 농가가 증가했다.

군은 올해도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이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심 군수가 취임 때 "재해보험의 군비 부담은 늘리고, 농가 부담은 덜어내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심 군수 취임 전 20%였던 농가부담금을 2023년과 2024년 각각 5%씩 낮춰 현재 10%까지 부담이 줄었다.

보장 품목 역시 2001년에는 사과와 배에 그쳤지만, 현재는 고추와 노지수박, 복분자, 단호박 등 지역별로 약 70개 품목으로 늘어났으며 가입기간

도 품목별로 운영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업 재해에 맞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감사드

린다"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안정과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정읍시, 축산 악취 해결 환경 개선 추진

### 9억여원 투입...정화방류시설 개선·양돈농가에 사업비 50% 지원

정읍시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8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악취저감시설 지원과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축산업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꾀하는 이번 사업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의 중요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

시는 공인인증 기관의 실증을 거쳐 검증된 시설을 중심으로 양돈농가에 악취저감 사업비의 50%

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설비는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미생물배양기, OH라디칼, 악취저감 시스템 등이며 축산 농가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이 포함된다.

축산악취 개선사업도 시행한다. 농립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

하기 위한 정화방류시설 개선을 목표로 한다.

축사 내·외부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시는 축사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냄새저감제를 활용한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관리 농가 20호에 냄새저감제 구입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냄새저감 관련 컨설팅도 실시해 농가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다.

정읍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악취저감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분뇨 처리와 악취 민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군,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7억 모금

### 동학혁명 홍보관 이전 등 지역발전 사업 투입...답례품 1위는 쌀

고창군의 고향사랑기부금이 지난해 7억원 가까이 모이면서 지역발전 사업 등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총 6억 9397만 6000원을 모금했다.

모금방법별로는 온라인(고향사랑 E음) 5억 5361만 4000원, 오프라인(농협 창구 등) 모금액 1억 4036만 2000원이다.

이는 기부제 첫해인 2023년 대비 약 7.7% 늘었다.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자가 724건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기부 문화 확산을 보여줬다.

기부자에게 제공된 답례품도 1억 4996만9330 포인트(10만원 기부 시 3만 포인트 지급)에 달했다.

인기 답례품에는 고창쌀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고향사랑상품권, 고향풍천장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부금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 기존 접근성이 떨어졌던 동학농민혁

명 홍보관(공음면 옛 신왕초 부지)은 사업비 4억 9000만원을 들여 고창군 한 중심(전봉준 장군 동상 옆)으로 이전 사업이 한창이다.

또 '행복누리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이 쓰이면서 농어촌 지역 아이들의 학습, 예체능, 정보화 등에 폭넓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연말부터 지정기부가 가능해 지면서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도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1월 6일 현재 영선고 야구부 지원에 2239만원, 고향 꿈나무 해외연수 지원에 1526만원이 모금 중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분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농산물 판매지원, 청소년 지원 사업 등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